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도민 적극적 참여 바탕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1
강원도민일보	23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 주민자치 일꾼 한자리 화합·교류	1
江原日報	12면	강릉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2
강원도민일보	22면	"재난 없고 안전한 특자도 만들기 의용소방대원 앞장"	2
江原日報	06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심영곤 도의원	3
강원도민일보	22면	심영곤 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3
춘천MBC	온라인	심영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 선출	4
연말뉴스		심영곤 강원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선...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삭감...개원이래 최대 위기	6
파이낸스투	온라인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 25일 문화복지회관서 개최	7
강원도민일보	14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평창군지부 창립식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8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용복(고성·원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지영(...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심영곤(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8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잔걸음	9
江原日報	01면	道-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양성' 손 잡는다	10
江原日報	01면	“산업의 쌀 반도체가 강원도의 새 먹거리”	11
江原日報	02면	"물·전력 등 경쟁력 충분 ... 강원형 산업 육성 자신 있어"	11
江原日報	02면	“전력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 가장 시급”	12
江原日報	02면	“반도체교육센터 클러스터 조성 교두보”	12
江原日報	03면	"반도체 후발주자 강원도가 오히려 새로운 그림 그릴 수 있...	13
江原日報	03면	이지한 “인력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인치호 “첨단학...	14
江原日報	03면	김가인 “AI반도체 반드시 추진할 필요는 없어” 임신일 “지...	15
강원도민일보	01면	태백 청정수소 특구 해제수순 밟나... 칼 빼든 감사위	16
江原日報	04면	춘천 상중도서 선사 유적 무더기 발견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춘천시의회 보류, 시민 납득 충분한지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 축제 지산지소(地產地消) 지향해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럽피스킨병에 뚫린 도내 농가, 감염 확산 막아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北 주민 목선 귀순 경계실패 논란, 철저한 규명을	21

2023 10 26 ()

江原日報

21

“도민 적극적 참여 바탕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강릉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정선 고한읍 자치위 대상 영예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 (사)강원도주민자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고 다짐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가 25일 강릉 아레나에서 개막해 2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에는 봉사부문 김선숙(강릉), 나눔부문 김상복(철원), 가족사랑부문 박일호(원주)씨, 고향사랑부문 박영주(사)강원특별자치도민중앙회 감사가 각각 수상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사)강원도주민자치회가 마련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가 25일 강릉 아레나에서 개막해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올해 주민자치대상은 정선군 고한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은 정선군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받았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

들의 참여로 이뤄진다”며 “작은 시골 단위에서부터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생각과 목소

리를 정책에 반영시켰고, 도의회도 주민자치가 일상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운 도주민자치회장은 개회사에서 “주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주민자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인 강릉 아레나에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6 ITS 세계총회 부스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홍보관과 18개 시·군 부스가 설치됐으며, 26일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린다.

강릉=최영재기자 yj5000@

2023 10 26 ()

강원도민일보

23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 주민자치 일꾼 한자리 화합·교류

오늘까지 강원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발표·품물장터 운영
정선 고한읍주민자치위 대상 영예

도내 주민자치회 간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2023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가 25일 강릉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장과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권혁열 도의장 및 시·도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함영이 한 국여성수련원장,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17개 시군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가 공동주최하고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와 도내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및 18개 시



‘2023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가 25일 강릉아레나에서 이정운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장과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권혁열 도의장 및 시·도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군 홍보관, 주민자치회별 특산품품물 장터 등이 진행된다. 올해 주민자치대상은 ‘정선군 고한읍주민자치위원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운 회장은 “각 시·군 읍면동에서 다양성을 살린 실현 결과물들을 홍보하는 등 오늘날 주민의 현 소조를 엿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봉사정신이 가득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즐기고 나누는 유쾌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지금보다 좋은 자치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정착돼야 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

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완벽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주민자치가 일상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규 시장과 김기영 시의장은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다”며 “박람회 기간 동안 소통과 우의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얻어 앞으로 살맛나고 행복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재

江原日報

2023 10 26 ()

12



강릉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2023 강릉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가 25일 강릉올림픽파크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22

“재난 없고 안전한 특자도 만들기 의용소방대원 앞장”

정선서 소방기술경연대회 성료
1800명 참가 유공자 감사패 전달
화재·구조 등 5개 종목 경연

제9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25일 국민고향정선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이순석)가 주최·주관하고 정선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재학)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정선군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재난현장 대응 능력 및 소방기술 향상은 물론 지역재난방재의 구심 조직으로 활동하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25일 정선군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는 9000여 의용소방대원의 소통과 화합, 우호증진의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

의장, 최승준 정선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전영기 정선군의회의장, 최영수 정선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2023년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유치 유공자 감사패 전달과 19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해 화재, 구조, 구급 등 3개 분야 5개 종목의 소방기술경연으로 진행됐다. 김재학 정선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통해 대원 간에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며 소통하는 의용소방대로 거듭나 재난 없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유독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피해가 많았던 지난 여름,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서 활약을 펼친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주현

江原日報

2023 10 26 ()

06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심영곤 도의원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이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심영곤 위원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쳤다.

심 위원장은 삼척 출신으로 제9대 강원도의원, 오색삭도설치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심영곤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개입 완화와 단체장에 편중돼 있는 지방자치 권한 조정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22

심영곤 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수석부회장 선출

심영곤(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10대 하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한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고 심 위원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춘천MBC

2023 10 25 ()

심영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부회장 선출

강원도의회 심영곤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심영곤 의원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완화와 단체장에 편중돼 있는

지방자치의 권한 조정에 방점을 두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각 시도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공통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심영곤 강원도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심영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심영곤(삼척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모여 1991년 출범했다.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공통 이해 사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다.

심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완화와 단체장에 편중된 지방자치의 권한 조정과 방점을 두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한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3 10 26 ()

강원도민일보

도사회서비스원 예산 전액 삭감...개원 이래 최대 위기

정부, 지방자치기관 지방비로 부담
도, 전국 시도 협력 반영 지속적 요청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 포럼이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의 힘,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전국 시·도사회서비스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전액 삭감, 개원 만 3년이 된 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위기를 맞았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내년 도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국비 7억 8400만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각 광역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148억 3400만 원이 전액 깎인 데 따른 것으로 전국 공통 사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이번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질타하고 나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부활 여부가 관건이 됐다.

정부는 도사회서비스원이 도가 설립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므로 운영예산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 포럼이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의 힘,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개원 3주년 기념 포럼이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특별자치시대 강원의 힘, 사회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도사회서비스원은 도가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 10월 설립 후 3년만에 소속 시설 21곳, 종사자 170여명으로 조직을 키워왔다. 강원 원의 경우 운영비는 7대 3, 인건비를 5대 5로 분담하는 방식인데 국비 삭감이 확정되면 정상 운영에 가시발길이 예상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도가 자체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건축재정 기조 속에 반영 규모를 참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시·도와 협력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반영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기념 포럼에서 역시 강원통합사회서비스원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꼽혔다. 운영인 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발제에서 "국비 등 의존재원 축소시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은영 원장과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홍기중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진영호 도사회복지사업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맞춤형 돌봄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진

2023 10 26 ()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 25일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

박재균 기자

- 양양읍 승격 44주년 기념, 양양읍의 미래 담아

양양읍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가 25일,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25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읍 승격 44주년을 기념하고 읍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돼,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를 통해 읍민 화합의 장으로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양양읍민 한마당큰잔치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김시범·김순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진하 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의장 등 군의원, 진종호 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성철 양양읍장은 “양양읍은 양양군 6개 읍면 중 유일한 읍이자 군민 절반이 거주하는 행정·교통·산업의 중심지”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읍민들의 화합 속에 자긍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단결의 장이 되고, 나아가 양양군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25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양양읍민 한마당 큰잔치(사진:양양군 제공)

한편, 양양읍민의 날 행사는 1979년 5월 1일 읍으로의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5월 1일 진행해 왔으며, 바쁜 농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018년부터는 10월 중에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14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평창군지부 창립식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평창군지부 창립식이 25일 오전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중수 도의원, 김인천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이종봉 평창군산림조합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중앙회장, 서경석 강원지회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현태

2023 10 25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30분 인제 북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이지영(비례) 도의원은 26일 오후 5시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고성통일 명태축제 개막식에 참석.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자유총연맹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16



김용복 (고성·왼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지영** (비례) 도의원은 26일 오후 5시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열리는 고성통일 명태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4 ()

12



심영곤 (삼척) 도의회 운영위원장

은 24일 오후 4시30분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열리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정기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03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 이영 장관을 만나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쟁결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 건의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의사 피력
이 장관 “꼼꼼히 챙겨볼 것” 화답

김진태 지사가 2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또, 중기부 주관의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속초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이 장관과 간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핵심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그간 운영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고도화해 강원도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강원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열심히 육성 중이라는 것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특구다. 도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11월 중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올해 말 발표된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이 장관에게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의 속초 유치를 건의했다.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는 11월에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에 결정된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 10 26 ()

01

道-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양성' 손 잡는다

오늘 도청서 협약식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성전자가 26일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강원일보 등이 공동 개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삼성전자와의 협력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2·3·11면

김 지사는 “반도체 포럼 덕분에 이번 주는 ‘반도체 워크’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힌다. 여세를 몰아서 26일 삼성전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로 인력 양성·테스트베드·부지 조성·기업유치 4개의 전략으로 반드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벽돌 하나하나가 모이면 머지않아 원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원자치도와 삼성전자의 업무협약은 26일 오후 3시30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진태 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협

김 지사 본보 포럼서 깜짝 발표

“반드시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

국비로 추진되는 원주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전망

약서에 서명한다. 또 지현기(메모리 기획팀장) 삼성전자 부사장, 김종훈 삼성전자 부장 등이 참석한다.

박 사장은 올 3월 말 도청을 방문해 김진태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강원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교육센터 운영과 인력 양성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도체교육센터는 원주반도체 클러스터의 1호 프로젝트이자 반도체산업의 필수 기반인 인력 양성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국비 확보에 성공해 정부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며 내년 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교육센터는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일대에 건립되며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12억원이 투입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0 26 ()

01



“산업의 쌀 반도체가 강원도의 새 먹거리” 25일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강수 원주시장 등과 함께 현장에 마련된 반도체 기업들의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원주=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2

“물·전력 등 경쟁력 충분 ... 강원형 산업 육성 자신 있어”

김진태 차세대지사·원강수 원주시장 자신감·의지 내비쳐
반도체산업 수도권 집중 해소·원주권 확장 필요성 등 강조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 2일 차인 25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강원형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내비쳤다.

행사 1일 차인 24일 국정감사 수감으로 인해 반도체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진태 지사는 2일 차 포럼에 참여해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고 강원자치도 경쟁력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김 지사는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잘되겠어?라는 시선

이 많다. 물과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며 “원주 바로 옆인 이천 반도체 공장은 물을 어디서 끌어오나? 원주 부근 옆에 흘러가는 남한강은 물이 부족해서 안 되나, 어떻게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과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베풀 하나하나가 모이면 머지않아 원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반도체교육센터 200억원을 확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강원도에서 처음 있는 일, 원주시 개성 이래 없었던 일을 취임 6개월 만에 해냈다. 어마어마한 산업 기반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원주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원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바꾸니 하나에 다 잡아서는 안 된다. 원주시를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원 시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전자공학회 관계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들의 홍보부스를 돌아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파운드리 전문 기업 DB하이텍과 반도체 장비용 핵심부품 제조업체 (주)다이에스테크노, 세라믹 부품 제조업체 (주)미코세라믹스, 강원지역 반도체 1호 투자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무배터리 순간전압보상장치를 생산하는 웨스코 등의 제품군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김 지사와 원 시장은 기업의 매출, 시장 잠재력, 특화 제품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의 입지여건,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하며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번 포럼에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한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반도체 전공 학생들을 격려했다.

원주=최기영·이현정기자



◇25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가 원강수 원주시장 등과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홍보부스와 도내 대학들의 발표 포스터를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주=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2

/ 기조강연 /

“전력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 가장 시급”

이상기 DB하이텍 부사장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 2일 차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상기 DB하이텍 부사장은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차세대 반도체) 최신 기술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고 ‘전력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력 반도체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전력 변환·변압·분배·제어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설명한 이 부사장은 “실리콘 대신 SiC(실리콘카바이드) 등이 자동차의 전력 반도체가 되면서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고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4~6%밖에 안 되고 특히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2022년 기준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는 25%밖에 안 되지만, 2027년에는 전체 전력 반도체 시장의 33%가 자동차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더 많은 비율을 예측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고전압, 고주파, 고온에 강하고 전력 효율이 높은 SiC와 GaN(갈륨나이트라이드)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성장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업체들이 개발에 활발한 상황”이라며 “국내 전력 반도체 시장의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부사장은 “국내 전력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시장의 2% 이하다. 반도체는 수출하고 있지만 전력 반도체는 대부분 수입을 하는 이면이 있는 것”이라며 “전력 반도체 분야의 인재 육성이 시급하고, DB하이텍 역시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6인치가 주류인 SiC와 GaN 8인치 양산공정을 선행 확보, 전력 반도체 분야 선진 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2

/ 인터뷰 /

“반도체 교육센터 클러스터 조성 교두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 전무

삼척 출신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교육센터’가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여한 안 전무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등을 꼽았다.

안 전무는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연구시설, 기업에 위한 서비스 등 3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원주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건립되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연구도 할 것이다. 또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반도체 교육센터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 교육센터가 산업 육성의 시작이다. 교육센터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확장은 어렵다. 꼭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무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 입장에서 희망이 있다”며 “포럼 슬로건이 ‘강원 반도체를 시작하다’인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강원 반도체를 본격 시작하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최기영기자



라, 연구시설, 기업에 위한 서비스 등 3가지를 갖춰야 한다”며 “원주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건립되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연구도 할 것이다. 또 기업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반도체 교육센터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 교육센터가 산업 육성의 시작이다. 교육센터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확장은 어렵다. 꼭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무는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 입장에서 희망이 있다”며 “포럼 슬로건이 ‘강원 반도체를 시작하다’인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강원 반도체를 본격 시작하다’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최기영기자

원주=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3

“반도체 후발주자 강원도가 오히려 새로운 그림 그릴 수 있어”



기조강연하는 이상기 DB하이텍 부사장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 2일차 일정이 25일 인터볼고호텔 원주에서 이상기 DB하이텍 부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열려 각 세션별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원주=박승선기자 hyano@kwnews.co.kr

/ 세션 1 /

강민식 “정부 반도체 예산 집중투자 잘 활용해야”
구상모 “강원자치도 선택과 집중 육성 전략 필요”
김효성 “지역 산업기반 활용해 소재 국산화·다변화”
손선영 “물·전력 풍부한 강원 반도체 산업 최적지”
강태영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면 성과 나올 것”
문재경 “가장 중요한 인력양성 치밀한 준비 호평”

“반도체 분야 후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크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포럼 2일차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현황 및 강원자치도 모델’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에 이제 첫발을 떼고 있는 강원자치도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다면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강민식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융합연구센터장은 “반도체 산업

이 점차 정부 주도로 바뀌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강원자치도만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지속 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도체 팹(제조공장) 구축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에 집중할 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차별화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가 기존보다 장비에 덜 의존하며 변화를 맞이했다고 분석한 구상모

광운대 교수 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가지면 시의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강원TP 반도체육성팀장은 “소재의 국산화, 다변화 등은 지역 산업 기반이 있어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 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실증 등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의 용수·전력 부족 문제 우려에 대해 반박한 손선영 상지대 교수는 “용수 문제는 남한강이 있고, 그 래도 문제라면 인공 호수를 만들어도 된다”며 “전력 역시 강원권 전력 사용량이 수도권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최적지”라고 평했다.

창업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강태영 파워큐브세미(주) 대표이사는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넓는데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선택·집중한다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문재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인데 강원지역은 출발부터 구체적이고 준비도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 전기가 많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반도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 돕자”고 말했다. 원주=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3

/ 세션 2 /

이지한 “인력 육성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인치호 “첨단학과 학생 정주환경 조성 시급”

황인철 “규제 완화 통한 기업 유치가 관건”

김정범 “특성화대학·공동연구소 반드시 관철”

정연모 “아이텍 반도체 인력 양성 주목을”

‘반도체 산업인력 현황 및 양성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는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거론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산업계는 탄탄한 기초, 실제 현장에 투입될 인재를 찾고 있지만 업무 차질 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인력 양성 사업 내용을 공유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치호 세명대 교수 역시 “산·학·관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면 더 효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치호 교수는 특히 “강원지역 대학에서 첨단학과를 개설해도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할까, 또 졸업 후 얼마나 남아 있을까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강원도서 정주할 환경 조

성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황인철 강원대 교수 역시 “사람을 키우려면 기업이 있어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규제 완화 후 기업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백엔드 디자인 업종의 경우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급 인력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추천은 이 부분을 고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정범 강원대 교수는 “전공자에 대한 인력 양성 필요성을 느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역시 꼭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좌장을 맡은 정연모 경희대 교수는 “아이텍(IDEC·반도체설계교육센터)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 양성에 기여한 만큼 강원자치도 7개 반도체 공유대학이 참고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원주=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10 26 ()

03

/ 세션 3 /

김가인 “AI반도체 반드시 추진할 필요는 없어”
 임신일 “지금은 기업과 함께 성공 경험 쌓을때”
 윤상균 “기업 특화 자체 솔루션으로 경쟁력 강화”
 백명현 “미개척 분야에서 오히려 큰 기회 있어”
 정성엽 “대학 협력 통한 양질의 연구 체계 필요”
 고요한 “지역산업 바탕 반도체산업 성공시키자”

포럼 세 번째 세션은 ‘차세대 지능형 AI 반도체 개발 및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산업 시작을 축하하면서도 AI반도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AI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고 운을 떼며 “강원도에서 반도체를 한다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반드시 AI반도체일 필요는 없다. 블루오션을 노

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시스템 등 많은 것이 갖춰져야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임신일 서경대 교수는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선 기술력과 인프라가 있어야 하고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많아야 하는데 지금 강원도는 환경이 안된다”며 “지금은 기업과 함께 단기간 실적을 낼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 경험을 쌓은 이후 부가적인 것이 갖춰질 때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균 연세대 교수는 “기업마다

특화된 자체 솔루션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안 되고 시스템 반도체, 즉 AI반도체가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강원자치도가 AI반도체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명현 강릉원주대 교수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며 “10여년 전 수평 방향으로 줄이기 어려웠던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형으로 개발했던 사례를 보면 매머드급 투자가 아니어도 가능성은 있다. 강원자치도가 후발주자이지만 정확한 솔루션이 나와있지 않는 길들이 있고, 오히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봤다.

정성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실장은 “강원자치도가 어떤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산업환경을 구축할지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연구 중심 대학이 있어야 한다”며 “도내 대학이 협력해서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좌장인 고요한 연세대 교수는 “많은 양의 연산을 저전력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AI반도체라고 부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강원자치도가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제대로 반도체 산업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원주=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01

태백 청정수소 특구 해제수순 밟나... 칼 빼든 감사위

주관업체 부실사태 사업 안갯속

30일부터 특감, 도·태백시 긴장

민간기업 구속력 없어 귀추 주목

속보=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이 사업을 전담한 민간업체의 부실로 규제자유특구 해제 위기(분지 10월 21일자 1면)에 놓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예고, 칼을 빼들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는 '109억 원' 혈세낭비 논란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 2년만에 중단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에 이은 '제2의 특정감사'가 될 것으로 보여 부실업체 선정 과정 등을 놓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25일 분지 취재 결과, 도감사위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 전반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선, 강원테크노파크가 감사 대상이다. 이 사업 참여기업 및 기관은 ㈜그린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주)SK에코플랜트, (주)제이엔케이히터, (주)제이엔지와 강원테크노파크이다. 특정감사 예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특구사업 착수조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태백 소

재 (주)그린사이언스가 선정된 전반의 과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연계된 도와 태백시 담당부서 등에 대한 감사 역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도 감사위 특정감사는 민간기업에 대해선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이 사업을 총괄한 (주)그린사이언스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와 도 등은 특구사업의 착수조건인 철암 발전소 가동·채무해소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일자로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27년 4월까지 총 192억 원을 투입하는 실증 사업(장성·동점·철암동 일대)이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고,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하루에 수소 700kg 규모를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주관 업체의 부실사태로 특구 해제 위기에 더해 실제 사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강원연구원 연구과제 실제 수행 여부와 사업비 집행, 복무점검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병행한다. 연구과제 건에 대한 특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태백 청정수소 생산 사업 건은 '추진 불투명'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지은·김덕형

江原日報

2023 10 26 ()

04

춘천 상중도서 선사 유적 무더기 발견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 부지서
석기·토기류 등 229기 유구 발굴
도내 첫 청동제 검과두식 출토도
시 “복원사업 일정 변경 불가피
문화재청 결정 따라 최종 검토”

춘천시가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중도 일부 부지에서 선사시대의 유구가 다수 발견됐다. 시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유구가 발견된 부지 내의 사업 일정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춘천 상중도 고산 아래의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부지.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이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발굴해 낸 선사시대 229기의 유구가 깔끔히 정비돼 있었다. 유구가 발견된 8,055㎡ 규모의 부지에서는 석창, 석촉, 석부류, 석도, 방추차 등의 석기류와 돌대문, 이종구연, 공열문, 구순각목문, 무문토기 등의 토기류가 출토됐다. 이외에도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사이에 사용됐던 타날문토기와 단경호, 기와류 등이 출토됐고 최대 120㎡ 규모의 정사각형, 직사각형, P자 모양 주거지가 발굴됐다.

특히 강원지역 최초로 청동제 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지난 24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춘천 상중도 고산의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부지 내 유적조사현장을 공개했다. 고산 주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신라, 고려 등 229기의 유구가 발견됐다. 김남덕기자

과두식(검 장식)이 발견, 중국 요동 지역으로부터 전래돼 현지화된 검과두식의 형태를 면밀히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홍주희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은 “이번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중도 일대가 신매리와 우두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중심 취락지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며 “청동기시대 전체를 아우르

는 한반도 유구가 다량 출토돼 고고학 연구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중도 일부 부지에서 선사시대 유구가 쏟아져 나오면서 춘천시의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 또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상중도 부지 4만2,000여㎡에 고산 지역을 배경으로 한 조선문화유산의 전시 공간과 문학 공원 조성

을 추진해 왔다.

춘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사업 부지에서 선사시대 유구가 출토됨에 따라 내년 중 완료 예정이었던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발굴된 유구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부지 등의 사업 내용을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 19

춘천시의회 보류, 시민 납득 충분한지

-보건소 신축·기념관 운영 차질...시정 발목 잡기 비칠수 있어

춘천시가 본격 착수하려던 보건소 신축과 민주평화기념관 운영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보건소 신축 사업은 급증한 시민 의료 수요 대응 및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현안입니다. 민주평화기념관은 민주사회를 성취하는데 현명한 역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개관을 향해 속도를 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건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내지 안전 상정조차 안돼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기행위는 10월 23일 시보건소 신축 첫 단계인 2024년도 정기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습니다. 사업비 중 시비 부담액이 큰데다가 건축기획용역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활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춘천시측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와 시 응답 등 궁금한 사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궁금증 해소 기회도 없이 부결된 것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주민 건강복지 확충된 직결된 보건소 신축을 서둘러온 춘천시는 시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끝에 설계비를 이미 국비로 확보했기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국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지

방자치단체 교부금이 대폭 감축되는 마당이어서 현실적으로 국비 증액이 쉽지 않은데다가 업무 지연으로 준공 목표시점이 27년 하반기 내지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4일에는 기행위는 과거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시가 재차 제출한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민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 시의원들 간에 고성으로 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어제 (10월 25일) 시의회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성명이 나오는 등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설이 마무리된 기념관 개관 시점이 미뤄지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지자체 정책과 집행 과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와 부결은 빈번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거쳐 제출된 시 계획이 안전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는 다거나 시의회와 시간 질의 응답으로 간극을 줄일 수 있는데도 노력의 미흡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고 시민 납득도 충분할 수 없습니다. 시정 발목 잡기로도 비칠 수 있어 미래를 향해 분초를 다투는 지역 경쟁 시대에 춘천의 손실을 걱정하게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26 ()

/ 19

지역 축제 지산지소(地產地消) 지향해야

-유명 가수 중심 공연 보완, 정체성·상생 고민할 때

지역 축제는 위축된 경기를 견인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축제의 성공은 사계절 관광지로서 강원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식과 폐막식 공연은 행사 흥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초청된 유명 가수들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참여 열기를 높입니다. 하지만 행사장마다 유명 가수들이 단골로 등장해 축제를 차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행사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수년전부터 일고 있는 트로트 가요 열풍은 이런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축제를 마련하는 지자체나 주최 측에서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가수를 초청해 식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축제 공연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 관심을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형화된 행

사와 가수 초청 공연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역 행사들이 고유의 특색을 잃어버리고千篇일률적인 형태로 굳어지는 것이 나라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가수 초청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7720명 가운데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가수들이 3555억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수 소득의 70%가 가까이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46억원에 달하며, 행사와 공연 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 대신 지역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가수를 출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입니다. 절감되는 출연료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권할 만합니다.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을 통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3 10 26 ()

/ 19

럼피스킨병에 뚫린 도내 농가, 감염 확산 막아야

〈가축전염병〉

도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후 나흘 만이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 1마리가 지난 24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방제 인력을 투입해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소 29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127개 농가 5,058마리에 대해서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및 집중 소독, 긴급 정밀 검사, 백신 접종 등도 실시한다. 우리가 현실이 되면서 도내 축산농가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 치솟는 사료 값과 인건비에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들로서는 엇친 데 덮친 격이다.

럼피스킨병은 모기나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감염된 소는 40도 이상의 고열과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며 식욕 부진, 쇠약으로 우유 생산량이 급감한다. 암소는 유산, 수소는 불임이 나타난다. 폐사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럼피스킨병은 감염된 개체의 직접적인 접촉,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사료에 의해 퍼진다. 따라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를 살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소 200만마리가 럼피스킨병에 걸려 15만마리가 폐사했다.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럼피스킨병 백신을 차질 없이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하고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역 당국은 전국 농장에서 당분간 럼피스킨병 발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의심 가축이 나오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생소한 가축전염병으로 각별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가축전염병 전반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대비책을 짜야 할 시점이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린다. 그동안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한우농가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기후 변화 탓도 있지만 밀집된 사육 환경과 살처분 및 농가 보상 비용으로 방역예산 대부분이 집행되는 구조도 문제다. 때문에 예방적 대응체계 작동이 어렵다. 가축전염병 대처를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다.

江原日報

2023 10 26 ()

/ 19

北 주민 목선 귀순 경계실패 논란, 철저한 규명을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24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자들을 강제 북송한 이후 동해를 통한 귀순이 사라졌으나 최근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늘면서 동해 귀순 루트도 되살아났다.

해상 귀순은 올 5월 서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 이후 5개월 만이다. 문제는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일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목선이 발견된 속초 동쪽 해상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이다.

군의 동해 NLL 감시·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물론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새벽 동해상의 '의심 선박'을 레이더와 열상 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로 포착하고 오전 5시 30분께부터 작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고는 주민이 해 경계 실패 논란이 제기되며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군은 2019년 6월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 앞바다에서 수시

간을 보내다 부두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을 불렀다. 당시 목선은 10m로 이번 7.5m 목선보다도 컸었다. 군은 철저한 조사로 경계 실패가 있었는지 가려내야 한다.

경계에 허점이 있었다면 문책은 당연하다. 이는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경계 실패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따져야 한다. 그리고 문란해진 군 기강을 재정립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군에

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건을 보면 충격을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장군과 장교들은 책임져야 할 사건에 은폐·축소·조작을 서슴지 않고, 병사들은 간부 알기

24일 오전 속초 앞바다 어민이 발견 신고

동해상 귀순 시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허점 있었다면 문책하고 기강 바로 세워야

를 우습게 알고 군법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우애는 사라지고 대화는 단절됐다. 간부는 병사들의 왜곡된 신고가 두려워 제대로 지휘를 할 수가 없다. 힘든 훈련을 받기 싫으면 아프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지휘관은 아프다고 한 병사의 청원을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확인 조치 없이 그냥 쉬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군대라 말할 수 없다. 우리 군은 경계에 실패할 때마다 "반성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다짐했다. 이제 그 말을 국민은 물론이고 군인들 자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군 전체에 대한 군기 검열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